

“국민 80% 찬성”...민주, 야 공세 차단 언론중재법 여론전

박완주 “언론재갈법은 호도” 이낙연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 한준호 “8월 국회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작업에 속도를 냈다. 지난 27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 맞서 야당의 독주 프레임에 피하기 위한 대대적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속도전을 통해 문체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가기 전 '8월내 처리'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로 가짜뉴스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

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국민의 한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국민이 원한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조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 대상자에게 크로스체크해서 그것을 실어주면 언론은 고의 중과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여당이 무리하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은 없었다”며 “속도를 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전격 가세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지금도 일반 시민과 언론계는 생각이 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를 것”이라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도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제가 현직 기자라면 그것을 환영했을 것 같다”며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는 복구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론인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호남지역 대학교수 518명 이재명 지지 선언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치인”

호남지역 대학교수 518명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광주의 5·18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 선언에서 이재명 지사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정치인으로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방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갖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로 성남 시장 재임 시절 시의 재정을 완벽하게 건전한 상태로 되돌린 점과 경기지사 재임 중 공약이행률

이 95%에 달할 정도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후보라는 점을 꼽았다. 이 두 가지 장점은 결국 지방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감안해 호남지역 39개 대학 518명의 교수들 가운데 상임대표 10명과 공동대표 10명만이 참여했다. 상임대표로 박대환(전 조선대 교수협의회 회장), 김재형(전 조선대부총장), 오병수(전 전남대 교수), 고두갑(목포대교수), 김한석(전 순천정암대 총장직무대리), 원용찬(전북대 상대학장), 고규진(민교협 전북대회장), 최광수(우석대교수), 김선광(원광대 교수협의회 회장), 송광민(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등 전현직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북지인 1715명 이낙연 지지 선언

“복지국가 실현 적임자”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보육교사·요양보호사·청소년지도자 등 사회복지인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가 내놓은 ‘신복지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사회복지인은 1715명에 이른다. 이 후보 측은 밝혔다.

광주전남 사회복지인 10여명은 29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예비후보의 신복지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 저소득층, 정신보건, 가족 및 다문화 등에서 일하는 복지 분야 당사자,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지 선언에 함께한 이들은 1715명에 이르지만, 회견장엔 대표성을 띤 일부만 참여했다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후보의 경선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함께 했다.

회견에서 이들은 “코로나19를 넘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대전환의 시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신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이낙연 예비후보의 신복지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이 불안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춘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낙연 후보가 자신의 국가비전 1호로 천명한 신복지정책은 복지현장에서 그동안 꿈꾸고 지향해왔던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와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신정훈의원-환경장관

나주 SRF 해결 논의

한정애장관 “책임감 갖고 역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환경부와 머리를 맞대고 나주 SRF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신정훈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나주 SRF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과 한 장관은 나주 SRF 문제가 지난 2007년 환경부의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정책’에 따라 출발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날 ‘장성·아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 주민참여’ 문제를 놓고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나주시 부시장, 지역난방공사 신성장본부장 등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연료 품질검사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신 의원은 “장성·아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 주민참여” 문제를 비롯해 나주 SRF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나주 의원사무실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간 소통하고, 격주 토요일 개최되는 ‘나주 소통의날’ 행사 때 직접 시민 여러분께 SRF 문제의 진행 상황 설명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례화 첫 자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신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11인 野잠룡 페어플레이 다짐 ... “정권교체 선봉 서겠다”

국민의힘 경선후보 간담회 ‘총선 부정선거 의혹’ 설전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1명이 29일 한자리에 모여 페어플레이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경선후보 간담회에 참석해 저마다 정권교체 최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역인 홍준표 박진 김태호 하태경 윤희숙 의원과 원외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안상

수 전 인천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기표 후보가 참석해 원탁에 둘러앉았다.

정해진 순서 없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태호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공존의 드림팀이 돼야 한다”며 “경선 과정에 인신공격이나 마타도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언이 필요하다. 약속을 어기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 의원은 “여당이 보여주는 진흥당 싸움, 중상비방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은 “우

리 당 경선이 민주당 경선과 달랐으면 좋겠다. 정책 싸움, 비전 싸움, 담론 싸움이 돼서 국민의 마음을 들어올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비록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정치 경험이 짧지만 여기 계신 여러 정치 선배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내는데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했다.

대체로 화기에 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낯선 발언도 있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차맥 회동’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이) 우리 당 위원장들을 (캠프 인사

로) 확정해놓고, 국민 앞에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고배를 든 바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당시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향해 농담조로 “좀 살살합시다”라며 미묘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주장하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전 대표가 문제의 의혹을 거론하며 진상규명 특검을 주장하자, 하태경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왜곡이 심하고 오해가 많은 과잉성 의혹들”이라고 지도부의 공식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황 전 대표도 “(대법원의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투표용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